

환영회 폭음사망 대학생

부모 구타의혹제기 부검

96. 3. 11
대전 북부경찰서는 10일 대학생
이 신입생 환영회 때 과음으로 사
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인
을 가리기 위해 장병권(19·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1)군의 주검을 부
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시적인 알콜중독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과음에 의한 구토 등으로
기도가 이물질로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과 장씨의 부모가 구타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장군의 주검을 11일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군은 8일 밤 대
전시 유성구 봉명동 7식당에서
가진 과 신입생환영회에서 선배·
동료 4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
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
나 숨졌다. 대전/손규성 기자